

# 18세기 유럽인의 중국 인식과 시각이미지의 변화

최 경 현\*

- I. 머리말
- II. 17세기 유럽과 중국의 만남
- III. 18세기 전반: 유럽인의 긍정적 중국관과 시각이미지
- IV. 18세기 후반: 유럽인의 부정적 중국관과 시각이미지
- V. 맺음말

## I. 머리말

유럽인과 중국인의 만남은 몽고족이 동서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시작되었다. 때문에 그 이전까지 유럽인의 세계관에 이슬람 너머의 인도, 중국, 한국 등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1237년 몽고족 바투(Batu, 1207-1256)가 이끄는 서방 원정대가 유럽 사회를 타타르 공포로 몰아넣으면서 교황과 유럽 국왕은 미지의 몽고 황제와의 화친 또는 기독교 개종을 위해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이때 파견된 프란체스코회 수도사인 카르피네를 비롯해 뤼브루크, 오도릭, 마르코 폴로 등은 몽고 황제를 만나고 돌아온 여정을 보고서나 여행기로 남겼다.<sup>1</sup> 비록 이러한

\*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sup>1</sup> 관련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김은정, 「13세기 서양에서 바라본 몽골 제국의 역사: 카르피네 수도사 Giovanni Piano di Carpine의 『몽골의 역사 Storia dei Mongoli』(originale 1329)를 중심으로」, 『이탈리아어문학』19(2006), pp.21-46; 박용진, 「중

기록물은 몽고족의 실체를 명확하게 전하지 못하였지만, 이슬람 너머 동쪽에 위치한 중국은 비단과 진귀한 보물이 넘치는 미지의 국가로 동경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는 유럽인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지리상의 발견과 대항해 시대를 가능케 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동서교류는 몽고족을 무너뜨린 명의 쇠국정책으로 중단되었으나, 종교개혁으로 위기를 맞은 기독교가 동방전교에 나서며 재개되었다. 200년이 훨씬 지난 1582년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1552-1610)와 예수회 선교사 13명이澳門(마카오)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중국에서 문인이나 황제 같은 지배층을 대상으로 선교를 시작하였으며 서양의 과학 지식이나 기구 등을 적극 활용하였다. 예수회 선교사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습득한 중국의 다양한 정보를 서신이나 보고서로 유럽에 전하였고, 로마 교황청은 중국 관련 자료들을 종합 정리하여 책으로 발간하였다.<sup>2</sup> 이를 계기로 유럽인들은 『동방견문록』 등에 의해 형성된 중세의 신비화된 中國觀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서도 예수회 선교사들이 보내온 방대한 중국 자료를 정리한 『中華帝國全志』(파리, 1735)<sup>3</sup>는 일종의 백과사전으로 중국의 역사, 학문, 종교, 문화, 풍습 등이 총망라되었다. 이 책이 18세기 전반 유럽 지식인들 사이에서 널리 읽혀지면서, 중국은 미지의 국가에서 문명국으로 그 위상의 변화를 보임과 동시에 상류층에서 중국 미술품을 애호하는 ‘시누아즈리’가 유행하였다. 일례로 프랑스 정치가 앙리 레너드 베르틴(Henri Léonard Bertin, 1720-1792)이 중국 미술품에 매료되어 수집한 171장의 중국 도자기 그림을 『欽定西清古鑑』을 참고하여 제작한 앨범은 유럽 상류층의 중국 취미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짐작케 한다.<sup>4</sup>

하지만 18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시누아즈리의 쇠퇴와 함께 문명국으로 예찬되던 중국은 단일 지배체제의 정체인 미개국이라고 비판되었다. 이처럼 유럽인의 중국관은 궁정에서 부정으로 급변하였으며, 영국의 조지 매카트니 사절단이 건륭제를 만나고 귀국한 여정을 정

---

세 말 유럽인들의 아시아에 대한 이미지와 그 변화』, 『서양중세사연구』33(2014), pp. 353-380; 마르코 폴로, 김호동 역주, 『동방견문록』(사계절, 2000); 오도릭 지음, 정수일 역주, 『오도릭의 동방기행』(문학동네, 2012) 등 다수.

<sup>2</sup> Gauvin A. Bailey, *Art on the Jesuit missions in Asia and Latin America, 1542-1773* (Toronto, Buffal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01), pp. 82-111. 中華世紀壇世界藝術館編, 『帝京印像: 西方版畫中的北京』(中華書局, 2009)을 비롯해 많은 자료들을 알려준 이주현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sup>3</sup> 책의 원제목은 *La Description géographique, historique, chronologique, politique et physique de l'Empire de la Chine et de la Tartarie Chinoise*이며, 이는 중국어 번역이다.

<sup>4</sup> Kee Il Choi Jr, "Ancien vs Antique: Henri-Léonard Bertin's Albums of the Qianlong Emperor's 'Vases Chinois'," *Journal 18*, 6(2018.9), pp. 1-38.

리한 『英使謁見乾隆紀實』(런던, 1797)<sup>5</sup>의 기저에는 부정적 중국관이 깔려 있다. 영국은 18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동인도회사 운영과 산업혁명으로 경제, 정치적 우위를 점하였으며, 19세기에 이르면 프랑스를 대신해 유럽 문화를 주도하였다. 결국 빅토리아 시대(1837-1901)의 영국은 유럽의 문화적 취향을 결정하였고, 산업기술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다.<sup>6</sup> 이러한 영국의 위상 변화는 『英使謁見乾隆紀實』에서 발견되며, 이때 윌리엄 알렉산더가 제작한 중국의 시각 이미지는 반복 재생산되며 유럽인의 부정적 중국관이 고착화되는데 일조하였다.

본고에서는 18세기를 통해 유럽인의 중국 인식이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뀌며 나타난 시각 이미지의 변화를 『중화제국전지』와 『영사알현건륭기실』의 비교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한다. 전자는 예수회 선교사들이 보내온 방대한 자료를 객관적으로 정리 서술하여 중국의 역사, 정치, 제도, 문화, 사상 등을 유럽 사회에 알리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의 이해를 돕는 시각 이미지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후자는 영국 외교관이 무역 확대를 목적으로 건륭제를 방문했던 일정을 서술한 것으로 중국 현지의 특정 경관이나 이동수단, 군사시설, 특이한 풍속 등의 시각 이미지가 사실적으로 표현되었다. 이처럼 『중화제국전지』와 『영사알현건륭기실』은 편찬자는 물론 서술 의도나 목적, 자료의 수집방법까지 다르지만, 두 저서에 포함된 시각 이미지가 18세기를 통해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뀐 유럽인의 중국관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17세기 예수회 선교사의 중국 선교활동과 동시기 유럽 사회의 상황을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 두 권의 저서가 발간된 과정과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여 유럽인의 변화된 중국관이 시각 이미지를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되었는지 알아보고 한다.

## II. 17세기 유럽과 중국의 만남

마테오 리치를 포함한 예수회 선교사들의 기본적인 선교 방식은 정복이 아닌 적응으로 중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였다. 그리고 지배층을 상대로 선교하면서 그들과의 소통을 위해 중국어나 한자를 배웠을 뿐만 아니라 학문, 종교, 문화 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기독교가 유교에 도움이 된다는 補儒論을 기반으로 중국인에게 하나님을 유교의 상

<sup>5</sup> 책의 원제목은 *An Authentic Account of an Embassy from the King of Great Britain to the Emperor of China*이며, 이는 중국어 번역이다.

<sup>6</sup> 이은상, 「18세기 전후 영국의 중국 인식」, 『한중인문학연구』42(2014), pp. 181-203.

帝 또는 天과 동일한 존재라고 설명하였다. 이로 인해 예수회 선교사들의 기독교 전파는 중국인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특히 마테오 리치는 중국의 불확실한 曆法을 해결하여 萬曆帝(재위 1572-1620)의 권위를 높여주면 선교활동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고 판단하여, 로마 교황청에 과학이나 수학에 뛰어난 선교사의 파견을 요청하였다. 일례로 니콜라스 트리고(Nicolas Trigault, 1577-1628)가 과학 관련 서양서 7,000여 종을 가지고 중국에 도착하였으며, 천문·역법·시각 등을 측정하는 欽天監에 근무하며 서양의 과학기술을 전하였다.<sup>7</sup> 예수회가 중국 선교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자 그 뒤를 이어 도미니크회(1631)와 프란체스코회(1633) 등도 뒤늦게 참여하였다.

마테오 리치의 뒤를 이은 아담 샬(Adam Schall, 1591-1666)은 명청교체기인 1645년 흠천감 책임자가 되었고, 바로 다음해에 새로운 역법인 『時憲曆』을 완성하여 順治帝(재위 1643-1661)에게 헌상하였다. 이처럼 예수회 선교사는 황제 측근에서 중국 과학의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중국의 다양한 정보를 기록한 보고서와 각종 서적, 미술품 등을 유럽에 전하였다. 선교사들의 중국 관련 보고서는 로마에 위치한 최고의 선교사 교육기관인 콜레기움 로마눔(Collegium Romanum)에 집결되었으며, 이곳에서 정리되어 서적으로 발간되었다. 독일 출신의 아타나시우스 키르허(Athanasius Kircher, 1602-1680)가 10여 년에 걸쳐 중국 자료를 정리하여 라틴어로 발간한 『中國圖說』(암스테르담, 1667)<sup>8</sup>은 그러한 예이다. 이 책의 첫 페이지에 마테오 리치와 아담 샬이 중국 지도를 들고 있는 모습은, 중국에 가 본 적이 없는 편찬자 키르허가 예수회 선교사들의 활동에 힘입어 저서를 발간했다는 상징적 우의를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도 1).

본문은 제1장 네스토리안 비석 분석, 제2장 중국의 지리·풍토·관습 등과 선교사들의 중국 활약상, 제3장 인도나 중국의 우상숭배, 제4장 중국의 동식물, 제5장 중국 건축물, 제6장 중국



도 1 『中國圖說』의 첫페이지, 암스테르담, 1667

<sup>7</sup> 이봉정, 「마테오 리치와 예수회 선교사들의 선교의 성격」, 『한국철학논집』55(2017), pp.376-404.

<sup>8</sup> 책의 원제목은 *China monumentis qua sacris quâ profanis nec non variis naturae et artis spectaculis aliarumque rerum memorabilium argumentis illustrata*이며, 이는 중국어 번역이다. 일반적으로는 'China Illustrated'라고 하며, 내용은 중국에 파견된 예수회 선교사 마이클 보임(Michael Boym, 1612-1659)과 마르티노 마르티니(Martino Martini, 1614-1661)의 서신에 주로 의존하였다.

문자에 관한 것으로 구성되었다.<sup>9</sup> 특히 제2장의 만주족 황제 순치제의 모습과 황제·관료·백성·종교인(스님)·하녀·군인들의 복식이나(도 2), 제6장의 『萬寶全書』(1612년 판본)에 있는 고대 중국 문자를 그대로 옮겨 놓은 삽화들은 예수회 선교사들이 얼마나 방대한 정보를 전달하였는지 알게 한다(도 3).<sup>10</sup> 이처럼 예수회 선교사들이 보내온 중국 자료들은 유럽인이 중세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중국을 독립된 하나의 국가로 인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렇지만 제3장의 미신을 믿는 장면과 상상의 동물들이 등장하는 삽화는 중세적 세계관이 일부 지속되었음을 알려준다(도 4). 이는 편찬자 키르허가 신학과 자연과학에 의한 우주관을 동일시하며, 14세기부터 16세기에 걸쳐 유럽인들이 중국을 진기한 나라로 생각했던 인식을 여전히 공유했던 것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 책은 발간된 다음해부터 네덜란드어·영어·프랑스어·독일어로 번역되어 광범위하게 읽히면서 유럽인들이 중세적 중국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의 역사나 사상, 학문의 근간을 이루었던 사유체계인 유교만을 본격적으로 다룬 『중국 철학자 공자』(파리, 1687)라는 책이 발간되었다.<sup>11</sup> 필립 쿠플레(Philippe Couplet, 1623-1692) 등이 편찬하여 프랑스 루이 14세(재위 1643-1715)에게 헌정되었으며, 본문은 서론적 해설, 공자의 생애, 대학, 중용, 논어, 중국황조편년사의 순서



도 2 중국 황제, 관료, 백성, 종교인(스님), 하녀, 군인의 복식, 『중국도설』, 1667



도 3 중국 문자, 『중국도설』, 1667



도 4 우상숭배 장면, 『중국도설』, 1667

<sup>9</sup> 김남시, 「사물문자로서의 중국문자 아타나시우스 키르허의 중국문자 이해」, 『중국어문학지』33(2010), pp. 326-330.

<sup>10</sup> 엄정삼, 「서양인에게 비친 중국문자: 키르허의 인용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지』33(2010), pp. 335-371.

<sup>11</sup> 책의 원제목은 *Confucius sinarum philosophus, sive, Scientia sinensis latine exposita*이며, 이는 중국어 번역이다. 필립 쿠플레 이외에 프로스페로 인토세타(Prospero Intorcetta, 1626-1696), 크리스티안 허드트리흐(Christian Herdrich, 1625-1684), 프랑수아 드 루게몽(François de Rougemont, 1624-1676) 등이 편찬에 참여하였다.

로 되어 있다.<sup>12</sup> 이는 유럽인에게 오랜 역사 동안 중국인 사유체계의 근간을 이룬 유교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한 최초의 저서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표지를 넘기면 중국에서 유교를 창시한 최고의 성현으로 추송된 <공자 초상>이 배치되어 있다(도 5). 루이 14세의 명령으로 베르사이유 궁전에 세워진 왕립도서관을 배경으로 인자한 모습의 공자가笏을 잡은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화면 상단을 보면 왕립도서관 위쪽에 쓰인 '國學'이라는 글자를 용이 양측면에서 호위하고 있으며, 실내의 안쪽에는 공자의 이름인 '仲尼'가 적혀 있을 뿐만 아니라 서가의 하단 좌우에는 제자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어 공자 사당을 연상시킨다. 이러한 시각이미지는 쿠플레를 비롯한 편찬자들이 중국에 대해 우호적이면서도 긍정적이었음을 시사해준다. 이 책은 유교를 기반으로 한 중국은 현명한 군주에 의해 통치되고, 보편적 이성에 의한 도덕성과 사회적 규범이 갖추어진 모범적인 국가, 즉 문명국이라는 이미지를 유럽인에게 각인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이 책도 프랑스어나 영어 등으로 번역되어 유럽의 계몽군주 담론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도 5 <공자 초상>, 『中國哲學者孔子』, 1687

다른 한편으로 『중국 철학자 공자』는 뒤늦게 선교에 나선 도미니크회나 프란체스코회 등이 예수회의 적응주적 선교를 부정하고, 조상에 대한 제례를 둘러싼 典禮논쟁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715년 교황 클레멘스 11세가 전례금지를 선언하였고, 이로 인해 중국에서 예수회 선교사가 러시아와의 네르친스크 조약 체결에서 공을 세우며 활기를 띠었던 선교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강희제(재위 1661-1722)는 적응주의 방식을 취한 예수회 선교사만 중국에 머물도록 하였으며, 옹정제(재위 1722-1735)는 1724년 기독교 포교를 금지하고 1735년에는 과학자 신분으로만 선교사의 체류를 허가하였다. 결국 1715년의 전례금지는 중국에서의 선교활동을 중단시켰으며, 1860년 제2차 아편전쟁으로 북경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선교사 입국이 불허되었다.

어쨌든 17세기에 예수회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보내온 방대한 자료들을 종합 정리한 책들이 다수 발간되었다. 그 중에서도 키르허의 『중국도설』과 쿠플레의 『중국 철학자 공자』는 유

<sup>12</sup> 이향만, 「『중국철학자공자』(Confucius Sinarum Philosophus)와 계몽철학」, 『신학과철학』17(2010), pp. 1-11.

럽인에게 가장 널리 읽혀지며, 미지의 진기한 중국이라는 중세적 이미지를 희석시켜 나갔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입장에서 중국의 실체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텍스트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Ⅲ. 18세기 전반: 유럽인의 긍정적 중국관과 시각이미지

유럽은 18세기에 이르면 신학 중심의 스콜라 철학에서 벗어나 이성에 의한 합리적 사고를 강조하는 계몽주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로 인해 형이상학적 관념보다는 경험과 과학을 중시하였으며, 사회적 도덕성이 강조되었고, 개인의 자유는 물론 권리와 교육 평등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전례논쟁이 가속화되면서 유럽에서의 예수회 입지는 크게 위축되어 갔다. 이때 적응주의적 선교를 옹호한 프랑스 출신의 장 바티스트 뒤 알드(Jean-Baptiste du Halde, 1674-1743)는 10여 년 동안 방대한 중국 자료를 정리하여 『中華帝國全誌』 총4권을 1735년 프랑스에서 발간하였다. 이 책은 유럽인에게 중국의 사상, 지리, 역사, 제도, 문화, 풍습 등에 관한 정보를 상세하게 소개한 일종의 백과사전으로 앞 장에서 서술한 『중국도설』이나 『중국 철학자 공자』처럼 영어, 독일어 등으로 번역되어 유럽 전역으로 보급되었다.<sup>13</sup>



도 6 <루이 15세 초상>, 『中華帝國全誌』 제1권, 1735

제1권의 앞부분에는 본 책의 발간을 후원한 프랑스 국왕 <루이 15세 초상>이 있고, 바로 뒤에는 <강희제 초상>가 실려 있다(도 6, 7). 두 황제는 재위연대가 다르고 교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희제 초상>를 배치한 것은 동시기 계몽주의자들 사이에서 강희제가 모범적인 계몽군주로 칭송되었고, 중국에서의 선교활동이 강희연간에 활발했던 정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인다. 또한 프랑스 국왕과 중국 황제를 동등한 존재로 연이어 배치한 것에서도 18세기 전반의 유럽인들이



도 7 <강희제 초상>, 『중화제국전지』 제1권, 1735

<sup>13</sup> 심태식, 「뒤 알드의 <중화제국과 중국 타타르의 지리, 역사, 연대기, 정치, 자연(물리)에 대한 서술> 小考」, 『중국학논총』30(2010), pp. 265-283; 전중호, 「『中華帝國全誌』에 나타난 예수회의 中國觀과 韓國觀」, 『서강인문논총』44(2015), pp. 211-253.

중국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본문에는 중국의 수도인 北京에 위치한 궁성과 황제에 대해 서술한 다음, 15개 지방의 지리적 특성을 소개하면서 간략하게 그려진 지도를 여러 점 수록하였다. 끝부분에는 夏부터 淸까지의 왕조 변천을 서술하며 2천 년 이상 유교적 지배체제가 변함없이 지속된 일관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계몽주의자들은 중국에서 황제 중심의 단일 지배체제가 유지된 것은 유교의 보편적 이성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제2권에는 중국의 정치, 제도, 풍속, 의학, 산업 등의 내용과 함께 삽화를 수록하여 유럽인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뒷부분에는 四書五經과 유학자들의 문집에서 발췌한 내용들이 번역되어 있다. 앞부분에 실린 <공자 초상>은 『중국 철학자 공자』에 소개된 것을 근간으로 하였지만(도 8), 공자의 이미지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도 5 참조). 화면의 배경에서 공자 사당을 연상시켰던 요소들이 모두 제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자한 표정의 중국인 대신 서양인이 책을 펼쳐 들고 있다. 이처럼 공자를 중국인이 아닌 서양인으로 묘사한 것은 중국학 연구가 심화됨에 따라 유럽인들 사이에서 중국과 유럽을 동일시하는, 즉 중국을 문명국이라 생각하는 긍정적인 인식이 이러한 삽화를 가능케 한 것이라 이해된다. 더불어 혈연적 신분제 사회로 계급과 민족, 의례, 성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중국 복식은 삽화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도 9). 또한 유럽에 없는 중국 고유의 풍속을 소개하였으며, <관리 행차>와 <혼례 행렬>은 그러한 예에 해당된다. <혼례 행렬>은 신랑이 예물을 앞세우고 신부를 맞이하기 위한 가마 행렬이 여성의 집에 도착하는 장면으로 묘사되었다(도 10). 중국이 넓은 영토에 자연의 혜택을 받아 물자가 풍부하다는 내용과 함께 지역에 따라 다른 낚시방법, 『本草綱目』같은 약학서에 실린 다양한 치료법이나 주요 약재인 인삼과 약초들이 삽화로 소개되어 있다(도 11). 이밖에 단오제에 사용되는 龍船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배들과 중국 화폐, 누에치기부터 비단 생산까지의 공정을 소개하는 시각이미지들이 다수 실려 있다.

제3권은 유교, 도교, 불교 같은 종교를 다루며 유교는 호의적으로 서술한 반면, 도교나 불교는 미신이라 규정하며 비판하였다. 이는 예수회 선교사들이 유교의 상제를 기독교의 하나님과 동



도 8 <공자 초상>, 『중화제국 전지』 제2권, 1735



도 9 황제의 의례복과 평상복, 『중화제국전지』 제2권, 1735



도 10 혼례 행렬, 『중화제국전지』제2권, 1735



도 11 인삼과 약초들, 『중화제국전지』제2권, 1735

일시하는 보유론이나, 단일의 유교적 지배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중국 문화의 고유성을 존중했던 적응주의적 선교방침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다음의 문장은 그러한 사실을 직접 확인시켜준다.

그들의 일차적인 숭배 대상은 어떤 궁극적 존재, 주님, 만물의 궁극 원리로서 그들은 이를上帝, 즉 지고의 황제 또는 그와 같은 의미인 天이라고 부른다. 통역자에 의하면 천이란 하늘을 다스리는 정신이라고 한다. 하늘이 바로 이 최초의 원리가 만들어낸 가장 뛰어난 작품이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물리적인 하늘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이는 이를 적용하는 대상에 달려 있기도 하다. 중국인들에게 아버지는 가정의 천이고, 副王은 지방의 천이며, 황제는 국가의 천이다. 중국인들은 또한 天보다 급이 낮은 정령을 숭배하기도 한다. 이 정령들은 최초의 존재에 종속되어 있으며 도시, 강, 산을 다스린다.<sup>14</sup>

이러한 내용은 예수회 선교사가 유교를 국가 종교로 이해하고, 사회적 평안이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문화적 규범체계로 인식하였음을 알려준다. 18세기 전반 유럽에서 중국학 연구는 예수회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보내온 엄청난 자료들 덕분에 가능하였다. 따라서 예수회가 기독교를 중국에 포교하면서 취했던 보유론이나 문화적 상대주의 입장을 기반으로 한 긍정적인 중국관은 이러한 자료들에 포함되어 유럽인의 긍정적인 중국관 형성

<sup>14</sup> 전종호, 앞의 책(2015), p.231 재인용.

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중국에서 서양의 과학이나 수학 지식을 이용한 적응주의적 선교활동에서 가장 커다란 업적을 남긴 마테오 리치, 아담 샬, 페르디난트 페르비스트(Ferdinand Verbiest, 1623-1688)를 함께 그린 삽화도 실려 있다(도 12). 이러한 시각이미지는 뒤 알드르를 포함한 『중화제국전지』의 편찬자들이, 유럽에서 전례논쟁이 심각한 가운데 예수회의 적응주의적 선교를 지지한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 제시한 단서로 해석된다. 마지막 제4권에는 중국의 주변에 위치한 만주족과 몽고족, 티베트, 한국에 관한 정보들과 함께 지도들이 실려 있다.



도 12 마테오 리치, 아담 샬, 페르디난트 페르비스트, 『중화제국전지』 제3권, 1735

『중화제국전지』는 18세기 유럽을 풍미한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예수회 선교사들의 현실 경험에 근거한 객관적 사실들로 채워졌으며, 17세기 전반에 편찬된 『중국도설』에 일부 포함된 중세적 중국관에서 벗어나며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중국의 정치, 제도, 풍속, 의학, 산업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실린 삽화에서 우상숭배나 기이한 생명체를 그린 일종의 상상화는 사라지고, 객관성을 담보하는 시각이미지와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지도가 다수 포함되며 합리적 이성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때문에 이 책은 18세기 전반의 유럽 지식인, 즉 중세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이성적 합리주의를 내세운 계몽주의자들이 중국을 연구할 때 가장 많이 참고되었다.

라이프니츠(Leibniz, 1646-1716)는 『최신 중국소식』의 서문에서 중국은 서양과 대등하고, 유학은 중국의 합리적인 통치체제를 지속시킨 자연신화이라며 기독교의 독단적 교리를 거부하는 계몽주의 사상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때 그는 『중화제국전지』가 아니라 왕립과학원 소속이며 예수회 선교사로 중국에서 활동했던 요아킴 부베(Joachim Bouvet, 1656-1732)로부터 중국 관련 자료들을 주로 제공받았다. 그의 제자들 가운데 스승의 영향을 가장 많은 받은 볼프(Wolff, 1679-1754)는 유교를 일종의 실천철학으로 이해하면서, 중국은 플라톤의 이상국가가 현실에 구현된 모범적인 국가라고 예찬하였다. 또한 볼테르(Voltaire, 1694-1778)는 중국의 유교적 지배체제를 옹호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강희제를 서양 군주의 모범이라며 칭송하

었다.<sup>15</sup> 이는 세습귀족에 의한 유럽의 절대왕정체제 대신 계몽군주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볼테르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논리적 근거로 활용된 것이다.

이처럼 전기 계몽주의자들은 유교에 기반한 중국의 통치체제에서 보편적 이성을 찾으며 예찬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동시기에 유럽의 상류층에서 시누아즈리의 유행도 이러한 학문적 경향으로부터 영향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계몽주의자들이 신학 중심의 철학을 거부하고 이성적 학문과 문화를 강조하는 논리체제를 확립해가는 과정에서, 동방전교를 이끈 예수회 선교사들이 보내온 중국 자료에 의존했다는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중국에 기독교 전파를 위해 파견된 예수회 선교사들에 의해 유입된 중국 자료들이 신학 중심의 스콜라 철학을 와해시키는 논리체제의 기반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 IV. 18세기 후반: 유럽인의 부정적 중국관과 시각이미지

유럽 계몽주의자들은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 중국관이 긍정에서 부정으로 급선회하는 변화를 보인다. 유교에 기반을 둔 중국의 지배체제를 모범적인 이상국가의 사례로 규정했던 논리들 대신에, 단일의 유교적 지배체제는 발전 변화가 없는 상태로 낙후된 국가라는 부정적 중국관이 빠르게 확산된 것이다. 이때 시민 계급 루소(Rousseau, 1712-1778)는 중국 역사나 문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본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평소 상류층 궁정문화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었으며, 이는 상류층에 의해 소비된 중국 문화로 옮겨가면서 이를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루소의 제자 헤르더(Herder, 1744-1803)는 부정적 중국관을 계승하여 전기 계몽주의자들에 의해 모범적인 이상국가로 칭송된 중국을 ‘방부 처리된 미라’와 같으며 극단적으로 폄하하였다.

전기와 후기 계몽주의자들은 동일한 중국 자료를 탐독하였음에도, 중국을 해석하는 방법론의 차이로 인해 긍정과 부정이라는 상반된 중국관을 적극 피력 하였다. 일례로 독일에서 대표적 중국학 연구자인 라이프니츠는 유교를 자연신학의 관점에서 해석하였고, 그의 제자 볼프는 보편적 실천철학으로 접근하여 중국의 정치와 문화를 모범적이라고 예찬하였을 뿐만 아니라 볼테르는 강희제를 이상적인 계몽군주에 비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헤르더는 한 민

<sup>15</sup> 이항만, 「『중국철학자공자』(Confucius Sinarum Philosophus)와 계몽철학: 전례논쟁의 철학적 영향과 형이상학적 보편주의」, 『신학과철학』 17 (2010), pp. 1-46; 안성찬, 「크리스티안 볼프의 중국과 헤르더의 중국: 18세기 독일에서의 중국관 변화에 대한 소고」, 『인문논총』 68(2012) pp. 17-25.

족의 역사는 지리적 환경과 더불어 생명체처럼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의 단계를 거치며 성장한다는 유기체론을 근간으로 한 역사철학을 중국에 적용하면서 상반된 논리를 전개하였다. 그의 입장에서 서양은 변화와 진보를 거듭한 문명국이라면, 중국은 몽고족이라는 불변의 인종적 특성과 함께 산맥과 바다로 둘러싸인 폐쇄된 공간에서 고대라는 유년기의 역사가 박재된 상태로 지속되고 있는 미개국이었다.<sup>16</sup>

이처럼 중국을 바라보는 유럽 지식인의 인식이 급변하면서 중국은 '예찬'에서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동시에 당시 유럽에서 루소에 의해 시민문화가 성장하면서 그 동안 귀족 중심으로 전개된 궁정문화가 쇠퇴했던 것도 중국관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18세기 전반의 계몽주의자들이 '위로부터의 계몽'을 시도한 반면, 후기 계몽주의자들은 시민계급을 중심으로 '아래로부터의 계몽'을 주도하면서 귀족에 의해 소비된 중국 문화는 자연스럽게 비판되면서 유럽 각국은 고유의 독자적 문화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또한 전례금지 선언으로 예수회 선교사를 통한 중국 문물의 유입이 거의 중단되면서 영국의 동인도회사가 청과의 무역을 통해 이러한 소비를 충족시켰고, 산업혁명이 전개되면서 프랑스를 제치고 경제적 우위를 점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중국과의 무역은 廣州로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간이나 물품도 통제되면서 영국 상인들의 불만이 커졌고, 국왕 조지 3세(재위 1760-1820)는 이러한 불만 해소를 위해 1788년 찰스 앨런 카스카트(Charles Allan Cathcart, 1755-1788)를 파견하였으나 도중에 병사하면서 중단되었다. 1791년 조지 매카트니(George Macartney, 1737-1801)를 전권대사로 임명하고 건륭제의 생일 축하 사절단 600명을 구성하도록 명하였다. 이때 동인도회사 소속의 식물학자이며 중국 사정에 밝은 조지 스톤튼(George Staunton, 1737-1801)이 부대사로 발탁되고, 중국의 현지 모습을 그림으로 기록하기 위해 영국 화가 윌리엄 알렉산더(William Alexander, 1767-1816)와 토마스 히키(Thomas Hickey, 1741-1824)가 포함되었다. 사절단은 1792년 9월 26일 포츠머스에서 64문 대포가 장착된 군함 3척을 타고 출발하여 건륭제를 만났으나, 무역 확대에 실패하고 1794년 4월 무렵 귀국하였다. 이러한 중국 여정과 관련 삽화가 포함된 『英使謁見乾隆紀實』 총 2권이 1797년 런던에서 발간되었다.<sup>17</sup>

이 책의 내용은 귀국 이후 부대사 조지 스톤튼이 2년 이상 집필하였고, 삽화는 윌리엄 알렉산더가 스케치를 바탕으로 귀국해 완성한 수채화 120점 가운데 29점을 영국왕립학회 회장

<sup>16</sup> 안성찬, 앞의 논문(2012), pp. 17-38.

<sup>17</sup> 中華世紀壇世界藝術館編, 앞의 책(2009), p. 98.

인 조셉 बैं크스(Joseph Banks, 1743-1820)가 선별할 정도로 영국 왕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영국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프랑스를 제치고 유럽을 대표하는 국가로 부상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포함되어있던 것으로 짐작된다. 앞서 서술한 중국 관련 책들이 프랑스 국왕의 후원을 받아 출판되었던 사실을 떠올리면 더욱 분명해진다.

1792년 9월 26일 포츠머스를 출발한 영국의 매카트니 사절단은 1793년 6월 마카오에 도착하였고, 청군의 허가를 받아 입국한 이후 북경으로 가기 위해 7월 天津 항구에 정박하였다. 하지만 영국 군함이 수심이 낮은 운하를 통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절단은 중국 배로 옮겨 타고 白河를 거슬러 올라가 마침내 8월 북경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휴식을 취한 다음 만리장성을 넘어 承徳의 피서산장에서 건륭제를 만나 무역 확대, 북경 영사관 설치, 광주에서 영국인의 무역조건 완화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면서 영국 사절단의 외교활동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렇지만 조셉 बैं크스와 윌리엄 알렉산더가 중국을 이동하는 동안 현지 모습 스케치로 기록하면서 예수회 선교사들이 보내온 자료들과는 차원이 다른 현지의 생생한 시각 이미지를 전달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제1권의 앞부분에는 윌리엄 알렉산더가 그린 <건륭제 초상>이, 제2권에는 토마스 히키가 그린 <매카트니 초상>이 실려 있다(도 13, 14). 이는 1735년 뒤 알드가 편찬한 『중화 제국전지』에서 프랑스 국왕 <루이 15세 초상> 다음에 <강희제 초상>를 배치하여 중국을 동등한 국가로 인식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도 6, 7 참조). 비록 매카트니가 조지 3세로부터 중국과의 외교 전권을 넘겨 받은 대사였지만, 중국 황제와 영국 귀족을 동등한 위상을 지닌 존재로 明示한 것에서 중국을 폄하하는 영국의 부정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도 13 윌리엄 알렉산더, <건륭제 초상>, 『英使謁見乾隆紀實』 제1권, 1797



도 14 토마스 히키, <매카트니 초상>, 『영사알현건륭기실』 제2권, 1797

또한 1793년 9월 14일 건륭제와의 만남에서 매카트니에게 중국식 외교 예절이 요구되었으나, 영국은 청의 속국이 아니라며 거절하였다. 그리고 매카트니가 건륭제의 뒷편에 영국 왕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한쪽 무릎만 굽힌 채 건륭제의 손에 입을 맞추는 영국식 예의를 취한 것은, 부정적인 중국관을 기반으로 피서산장까지 이동하는 동안 중국의 실제 상황을 묵도한 결과 영국이 중국보다 우위에 있다는 확실한 자신감이 영국식 외교 예절을 고집하도록 했던 것

은 아닌가 한다.

본문에 실린 알렉산더의 삽화는 이동 경로에 따라 그려진 것으로 중국 현지의 상황을 그대로 전달하는 최신의 시각이미지들이었다. 순서대로 간략히 소개하면 담뱃대를 든 하인과 노인을 그린 삽화 다음에 매카트니 일행이 1793년 6월 마카오에 도착하여 천진으로의 이동 허가를 요청할 때 보았던 군사시설과 조총·활·투구·칼·화살 등의 무기를 그린 삽화가 실려 있다. 이러한 삽화는 최신식 함선을 타고 입국한 사절단이 중국의 군사력을 파악하기 위해 면밀하게 관찰한 것이며, 향후 중국 무역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군사적 충돌도 가능하다는 제국주의적 행보를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후 북경으로 가기 위해 천진에 도착한 사절단은 白河 입구에서 청나라 군대와 백성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으며(도 15), 함선이 운하를 통과할 수 없어 일부 사절단과 물품을 중국 배로 나누어 옮긴 다음 운하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 8월 21일 북경에 도착하였다. 이때 알렉산더는 북경에 머물며 자금성과 원명원 등을 스케치 하였으며, 서쪽에서 바라본 자금성의 德勝門 일대를 그린 장면과 원명원의 正大光明殿, 白塔이 보이는 北海에서의 뱃놀이 장면 등을 그린 삽화들이 실려 있다. 원명원은 1709년 강희제가 나중에 옹정제가 되는 넷째 아들 胤禛의 휴식공간으로 揚春園 북쪽에 건립한 황실 정원이었다. 하지만 옹정제가 자금성 정전인 太和殿을 떠나 정대광명전에서 국정을 처리하면서 집무공간으로 용도가 바뀌었다. 9월



도 15 <청군의 영국 사절단 환영>, 『영사알현 건륭기실』, 1797

2일 사절단은 건륭제와 만나기 위해 북경을 출발하였으며, 만리장성을 넘어 9월 8일 승덕의 외곽에 도착하였는데 만리장성과 구조도 삽화가 추가되어 있다.

건륭제와의 만남에서 무역 확대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된 이후에는 중국을 천천히 정탐하며 귀국하였다. 중국의 독특한 경관을 그린 사례로 승덕에 위치한 사원건축인 普陀宗乘廟 삽화를 꼽을 수 있다(도 16). 이 건축물은 1771년 건륭제가 자신의 60번째 생일과 어머니의 8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도 16 <피서산장에 있는 小布達拉宮>, 『영사알현건륭기실』, 1797

위해 티베트의 小布達拉宮을 모방하여 세워진 것이다.<sup>18</sup> 그리고 운하와 해변에 위치한 마을의 모습이나 경관, 유교적 의례를 보여주는 묘소, 형벌 장면 등의 일상적 소재를 다룬 시각이미지는 민속지학적 면모를 보여준다.<sup>19</sup>

이상에서 살펴본 『영사알현건륭기실』의 삽화는 매카트니 사절단의 목적이 무역 확대였던 때문인지 운하를 중심으로 한 이동 장면과 이동수단인 배의 구조, 수도 북경의 圓明園과 만리장성의 구조, 청군의 무기 등처럼 교통이나 군사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가 담긴 삽화들이 전반부를 구성하고 있다. 반면 후반부는 건륭제와 만남에서 무역 확대라는 외교적 성과는 이끌어내지 못하였지만, 특이한 건축을 비롯해 운하나 해변의 경관, 풍속·형벌·연회 등 처럼 중국인들의 색다른 일상 소재들을 다룬 삽화들을 주로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이미지는 사절단이 표면적으로는 무역 확대를 내세웠지만, 예수회 선교사의 추방 이후 알 수 없었던 중국의 현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또 다른 목적도 있었다는 사실을 화가들의 사전단 포함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사알현건륭기실』에 포함된 삽화들은 외교 사절단이 중국 내지를 정탐한 결과물이며, 중국의 현지 사정을 명확하게 알고 싶었던 유럽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을 것이다. 특히 운하나 이동수단인 배들과 관련한 삽화의 비중이 상당한 것은 중국과의 무역 확대를 위해서는 물건이 운반되는 교통로와 이동수단이 중요했기 때문에 더욱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로 스케치 하도록 화가들에게 주문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뒤를 이어 1843년 중국의 건축, 문화, 풍속 등을 종합적으로 소개한 『古代帝國的風景: 建築和社會習俗』 총2권<sup>20</sup> 이 런던에서 발간되었다. 목사인 라이트 조지 뉴햄(Wright George Newenham, 1790-1877)이 중국 관련 기존의 사실들을 재정리하였고, 삽화는 일러스트레이터로 유명한 토마스 알롬(Thomas Allom, 1804-1872)이 『영사알현건륭기실』에 실린 삽화와 수록되지 않았던 윌리엄 알렉산더의 수채화를 토대로 다시 그린 것이다.<sup>21</sup> 삽화는 대부분 알렉산더의 그림을 각색한 것으로 구도는 거의 유사하지만, 세부의 지물을 새롭게 변화시키거나 강한 명암 대비로 시각적인 효과를 강조한 것이 특징적이다. 일례로 이 책에 실린 <만리장성>과

<sup>18</sup> 中華世紀壇世界藝術館編, 앞의 책(2009), pp. 98-109.

<sup>19</sup> 허경진, 「조선 사신과 영국 사신이 기록한 건륭제 탄신 축하 사행의 시선 비교」, 『동아인문학』38(2017), pp. 189-220.

<sup>20</sup> 원래 제목은 *China, The Scenery, Architecture, and Social Habits of That Ancient Empire*이며, 이는 중국어 번역이다. 이 책에 실린 삽화는 토마스 알롬이 윌리엄 알렉산더가 중국에서의 현장 스케치를 바탕으로 그린 수채화 120점을 밑그림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영사알현건륭기실』과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두 책의 비교 분석은 지면관계상 후회의 연구과제로 미루어 두고자 한다.

<sup>21</sup> 中華世紀壇世界藝術館編, 앞의 책(2009), pp. 46-55.

『영사알현건륭기실』의 〈만리장성〉을 비교하면, 전자는 화면의 전경에 가마를 탄 인물들의 긴 행렬을 배치하여 극적인 현장감을 강조한 반면, 후자는 휴식을 취하는 장면으로 인해 마치 유럽의 전원을 연상시키는 것처럼 이상적으로 묘사되어 있다(도 17, 18).



도 17 <만리장성>, 『古代帝國의風景: 建築和 社會習俗』, 1843



도 18 <만리장성>, 『영사알현건륭기실』, 1797

또한 이 책은 1840년 아편전쟁에서 영국군이 일방적으로 승리를 거둔 장면을 새롭게 추가하여 영국이 무역 확대를 위해 군사력을 동원했던 제국주의적 행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舟山島의 영국군영〉과 〈定海 공격〉은 1840년 6월 영국과 중국 사이에 일어난 아편전쟁의 일부를 그린 것이다(도 19). 이들 삽화는 영국군이 광둥을 점령한 다음 동부 연안에 3,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杭州灣에서 가장 큰 舟山島를 9분만의 포격으로 점령한 다음, 청군의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남선향로의 주요 항구인 定海에 상륙하면서 양자강 하구를 성공적으로 봉쇄했던 역사적 사실을 묘사한 것이다. 이처럼 영국군의 승리를 삽화로 추가한 것은 아편전쟁 이후 체결한 1842년 8월 남경조약으로 홍콩을 넘겨받고, 광둥과 하문 등 5개 항구의 개항을 약속받았던 우월감 내지는 자신감이 이러한 장면의 추가를 가능케 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책의 시각이미지는 헤르더의 부정적 중국관을 근간으로 하며, 아편전쟁은 19세기에 본격화된 유럽인의 제국주의적 행보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도 19 <定海 공격>, 『古代帝國의風景: 建築和 社會習俗』, 1843

## V. 맺음말

동서 교류는 明 건국과 함께 중단되었다가 종교개혁 이후 예수회의 동방전교가 시작되면서 재개되었다. 이때 예수회 선교사는 동서의 架橋者로 서양의 과학 지식이나 기구를 중국에 전하는 대신, 중국의 정치·제도·사상·역사·풍속 등 다양한 정보를 전하며 유럽인의 긍정적 중국관 형성에 기여하였다. 특히 17세기에 예수회 선교사들이 보내온 자료를 정리 편찬한 『중국도설』과 『중국 철학자 공자』는 미지의 진기한 중국이라는 중세적 이미지를 불식시켰으며, 상류층에서 중국 취미가 성행하는 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18세기 전반에 이르면 유럽 지식자들 사이에서 중국학 연구가 붐을 이루었으며, 일종의 중국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는 『중화제국전지』는 유럽인의 긍정적 중국관 형성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또한 이 책의 삽화는 미신이나 중국의 기이한 소문을 다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도·복식·풍속·화폐·산업·문자 등의 삽화를 포함하며 중국학 연구의 중요한 텍스트로 널리 읽혀졌다. 동시기 계몽주의자인 라이프니츠와 그의 제자 볼프, 볼테르에 의해 중국은 유교의 도덕적 관념과 합리적 이성으로 2천년 이상 동일한 지배체제가 지속된 문명국이라 칭송되었다. 이러한 유럽인의 긍정적 중국관은 중국 관련 방대한 자료들을 유럽에 제공한 예수회 선교사들의 기본적 선교방침이었던 적우주의나 보유론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8세기 후반에 이르면 유럽인의 중국관이 긍정에서 부정으로 급선회하며 시누아즈리도 쇠퇴하였다. 루소의 귀족문화에 대한 반감 내지 거부감은 그들에 의해 향유된 중국 문화로 옮겨가며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를 계승한 헤르더는 유기적 역사철학으로 접근하여 18세기 전반 모범적인 이상국가로 예찬된 중국을 단일의 유교적 지배체제가 지속된 ‘방부 처리된 미라’라고 폄하하였다. 이처럼 전기와 후기 계몽주의자들이 긍정과 부정이라는 상반된 중국관을 개진하였지만, 그들이 참고한 중국 서적이나 자료들은 동일하며 다만 헤르더가 역사철학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으로 접근하면서 변화 발전이 없는 단일의 유교적 지배체제를 비판한 것이다.

이처럼 부정적 중국관이 확산되는 가운데 영국은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에 따른 상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조지 매카트니를 대표로 하는 외교사절단을 중국에 파견하였다. 사절단의 중국 여정을 상세히 기록한 『영사알현견류기실』에 실린 시각이미지는 동행했던 화가 윌리엄 알렉산더가 그린 수채화 중에서 선별된 것으로 전반부는 운하로 이동하면서 실견했던 주변의 풍광과 이동수단인 배, 군사시설을 그린 삽화와 배와 운하의 구조를 그린 삽화들이 주류를 이룬다. 반면 후반부에 실린 운하나 해변의 풍광이나 중국인들의 생활 장면, 풍속, 형벌 등 일

상적인 소재들을 다룬 삽화들은 영국인이의 민속지학적 면모도 동시에 보여준다. 또한 윌리엄 알렉산더가 그린 중국의 시각이미지는 1843년 발간된 『古代帝國的風景: 建築和社會習俗』을 통해 재생산되었고, 여기에 영국군이 승리한 아편전쟁까지 삽화로 포함되며 유럽인의 부정적 중국관을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영사알현건륭기실』은 영국이 중국에서의 무역시장 확장을 위해서는 군사력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제국주의적 행보를 예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key words)** \_중국관(中國觀, the View of China), 동서문화 교류(東西文化 交流, Cultural Interchanges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공자 초상(孔子 肖像, the Portraits of Confucius), 아타나시우스 키르허(Athanasius Kircher), 필립 쿠플레(Philippe Couplet), 조지 매키타니(George Macartney), 윌리엄 알렉산더(William Alexander)

■ 투고일 2019년 8월 22일 | 심사개시일 2019년 9월 9일 | 심사완료일 2019년 10월 1일 ■

## 참고문헌

### 1. 사료

- Couplet, Philippe. *Confucius sinarum philosophus, sive, Scientia sinensis latine exposita*. Paris, 1687.
- Du Halde, J.-B. *La Description géographique, historique, chronologique, politique, et physique de l'empire de la Chine et de la Tartarie chinoise*. Paris, 1735.
- Kircher, Athanasius. *China monumentis qua sacris quã profanis nec non variis naturae et artis spectaculis aliarumque rerum memorabilium argumentis illustrata*, 1667.
- Newenham, Wright George & Allom, Thomas. *China, The Scenery, Architecture, and Social Habits of That Ancient Empire*. London, 1797.
- Nieuhof, Johann. *An Authentic Account of an Embassy from the King of Great Britain to the Emperor of China*. London, 1797.

### 2. 한국어 문헌

- 김은정, 「13세기 서양에서 바라본 몽골 제국의 역사: 카르피네 수도사 Giovanni Piano di Carpine의 『몽골의 역사 *Storia dei Mongoli*』 (originale 1329)를 중심으로」, 『이탈리아어문학』19, 2006.
- 마르코 폴로, 김호동 역주, 『동방견문록』, 사계절, 2000.
- 박용진, 「중세 말 유럽인들의 아시아에 대한 이미지와 그 변화」, 『서양중세사연구』33, 2014.
- 성백용, 「맨드빌의 『여행기』와 동양」, 『동국사학』49, 2010.
- 신상철, 「18세기 예수회 선교사를 통한 중국과 프랑스 간의 미술교류 역사」, 『美術史學』32, 2016.
- 심태식, 「뒤알드의 ≪중화제국과 중국 타타르의 지리, 역사, 연대기, 정치, 자연(물리)에 대한 서술≫ 小考」, 『중국학논총』30, 2010.
- 안성찬, 「크리스티안 볼프의 중국과 헤르더의 중국: 18세기 독일에서의 중국관 변화에 대한 소고」, 『인문논총』68, 2012.
- 염정삼, 「서양인에게 비친 중국문자: 키르히의 인용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지』33, 2010.
- 오도릭 지음, 정수일 역주, 『오도릭의 동방기행』, 문학동네, 2012.
- 이봉호, 「마테오 리치(利瑪竇)와 예수회 선교사들의 선교의 성격: 문명의 전파와 수용의 관점에서」, 『한국철학논집』55, 2017.
- 이은상, 「18세기 전후 영국의 중국 인식」, 『한중인문학연구』42, 2014.
- 이향만, 「『중국철학자공자』(*Confucius Sinarum Philosophus*)와 계몽철학: 전례논쟁의 철학적 영향과 형이

상학적 보편주의」, 『신학과철학』17.

전종호, 「『中華帝國全志』에 나타난 예수회의 中國觀과 韓國觀」, 『서강인문논총』44, 2015.

허경진, 「조선 사신과 영국 사신이 기록한 건륭제 탄신 축하 사행의 시선 비교」, 『동아인문학』38, 2017.

### 3. 동양어 문헌

中華世紀壇世界藝術館編, 『帝京印象: 西方版畫中的北京』, 中華書局, 2009.

### 4. 서양어 문헌

Bailey, Gauvin A. *Art on the Jesuit missions in Asia and Latin America, 1542-1773*. Toronto · Buffal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01.

Choi Jr. Kee Il. “Ancien vs Antique: Henri-Léonard Bertin’s Albums of the Qianlong Emperor’s ‘Vases Chinois’.” *Journal 18* 6. 2018.9.

## 국문초록

예수회 선교사들이 1582년 중국에 도착하기 이전까지 중국은 유럽인에게 미지의 진기한 나라로 호기심의 대상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선교사들이 선교활동을 하면서 서양의 과학지식이나 기구 등을 전함과 동시에 중국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을 보고서나 서신으로 유럽에 전하며 중국의 실체가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예수회 선교사의 자료를 토대로 편찬 발간된 서적들이 널리 읽히지며, 18세기에 이르면 유럽인의 중국관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8세기 전반에는 유럽에서 성행한 시누아즈리와 함께 중국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전기 계몽주의자들은 절대왕정시대의 사회적 부조리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17세기에 발간된 『중국도설』이나 『중국 철학자 공자』 등으로 중국을 연구하며 유교적 지배체제가 지속된 중국이야말로 보편적 도덕과 합리적 이성이 실현된 문명국이라 예찬하였다. 이는 적응주의와 補儒論을 표방한 예수회 선교사들이 중국에 대해 우호적이었던 것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1735년 발간된 『중화제국전지』는 중국 백과사전으로 전기 계몽주의자들의 영향으로 현실 경험에 근거한 객관적 사실들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삽화에서 우상숭배나 기이한 중국 소문을 다룬 시각이미지들이 제거되고 지리적 개념이 적용된 지도가 다수 포함되는 변화를 보인다.

그렇지만 18세기 후반의 후기 계몽주의자 루소는 시민 출신으로 귀족문화를 적대시하였으며, 그들이 향유한 중국 문화까지도 부정적으로 비판하였다. 이를 계승한 헤르더는 각국의 역사는 유기체처럼 변화발전한다는 역사철학을 중국에 적용시키며, 2천년 동안 단일의 유교적 지배체제가 지속된 중국은 정체된 미개국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처럼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시기에 영국 국왕이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1792년부터 1794년 사이에 파견한 매카트니 사절단의 여정을 기록한 『영사알현건륭기실』이 발간되었다. 하지만 삽화의 소재나 박재된 듯 무심하게 표현된 풍경화는 유럽인의 부정적인 중국관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알렉산더의 수채화 120점을 근간으로 다시 제작된 삽화와 아편전쟁에서의 영군국 승리 장면을 새롭게 추가한 『古代帝國的風景: 建築和社會習俗』이 1843년 발간되었다는 점에서 『영사알현건륭기실』은 영국의 제국주의적 행보를 예고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Changing European Perceptions and Images on China through the Eighteenth Century

Choi, Kyunghyun \*

To the eyes of Europeans, China had been nothing else but a curious, exotic, and mysterious land before Jesuit missionaries arrived at its shore in 1582. It is with a wealth of information the missionaries sent back via official reports and personal letters that substantial understandings and perception on the distant empire has increased throughout Europe. Publications based on the Jesuit materials enjoyed wide readership and eventually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European view on China in the eighteenth century.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century China has received a breadth of favorable approvals as the *Chinoiserie* prevailed in the opposite side of Eurasia. Studying such Sinological books from the preceding century as *China Illustrated* and *Confucius sinarum philosophus*, early exponents of the Enlightenment, who challenged social absurdities of the Age of Absolutism, eulogized the Confucian monarchy as a nation that has achieved a civilized code of universal morality and rationality. The enthusiastic approval had to do with the Jesuits who held a favorable attitude toward China while making missionary approaches of cultural adaptation and accommodation. *Description de la Chine*, encyclopedic volumes on China published by a French Jesuit in 1735, shows an influence from the early Enlightenment thinkers given that it attempts to fill the text with experiential learning and unbiased facts, removes visual images illustrating Chinese idolatry or bizarre hearsay, and includes maps with geographical features.

And yet the late eighteenth century saw a different phase. Rousseau (1712-1778) the

---

\* Connoisseur,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bourgeois thinker of the late Enlightenment, who opposed aristocracy, went on to criticize Chinese culture the noble appreciated. Following his teacher, Herder (1744-1803) concluded that the domination of Confucianism for two millenniums has left China still and benighted, the findings as a result of applying his organicistic philosophy of history. Amidst when such negative views on China proliferates did An Embassy to China come out, the journal George Macarney (1737-1806) kept during his embassy of 1792 to 1794 that the British King dispatched to address a trade deficit. Lackluster landscapes and subject-matters of illustrations William Alexander produced for the book testify to Europeans unsympathetic to China of the time. Furthermore, the Embassy foreshadows the forthcoming British imperialism, as attested by the later publication of *China, The Scenery, Architecture, and Social Habits of That Ancient Empire* (1843) that features an array of retouched illustrations based on Alexander's 120 works in addition to a new scene depicting the British victory over the Opium War.